

순천시, 상금 1억 규모 '웹툰·애니 어워즈' 개최

대한민국 웹툰 공모 상금 1억원 케나즈 연계... 수상자 연재 기회 학생 애니 어워즈 상금 2천만원 대상 로커스 전문가 피드백 지원

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가 웹툰·애니메이션의 실질적인 창작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과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를 개최한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어워즈는

순천에 위치한 웹툰·애니메이션계 앵커 기업인 케나즈, 로커스와 공동 주관으로 추진된다.

먼저 케나즈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은 총상금 1억원 규모로, 19세 이상 예비 창작자 또는 매체 연재 2회 미만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제와 소재에 제한 없이 매체 연재되지 않은 순수 창작 웹툰을 규격에 맞춰 제출하면 되고, 최종 수상자 4인에게는 레지던시 공간과 연계, 웹툰 연재를 위한 작품 멘토링 및 사업권 계약 등 다양한 창작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로커스와 함께하는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는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17세~30세(2008년~1995년생) 개인 또는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 부문은 단편(3~10분 내외)과 쇼츠(20~90초 내외)로 나뉘며, 총상금은 2200만원이다. 단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 쇼츠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수여되며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기업인 로커스의 기술력, 스토리, 상업성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이 제공된다.

두 공모전의 접수는 오는 8월26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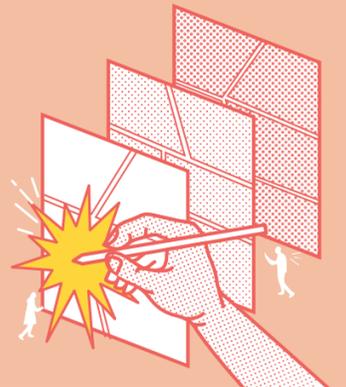
터 8월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오는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025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올텐가)'에서 전시·상영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창작자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콘텐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어워즈가 학생들과 예비 창작자들이 작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

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 내달 7~8일 개최

웹툰·애니 클러스터 모델 제시 팝업스토어·체험 부스도 마련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6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원도심 남문터광장 일원에서 콘텐츠 축제 '원츠(Wants) 순천'을 개최하며 원도심 활력 증진에 나선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원도심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원츠 순천'이 '정책박람회'와 시민로의 '주말의 광장'과 연계해 열리는 만큼 콘텐츠와 정책,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똥이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며,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와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육천변에서는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육천 포차와 야시장이 운영되며, 원도심 골목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 운영을 통해 지역 음식과 삼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활용해 콘텐츠를 연계한 교육사업도 진행한다. 교육지원청, 케나즈, 순천시가 협력해 초·중·고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회도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도심형 문화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0일 순천의 정원과 마을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 '순천 세계정원 마을여행'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식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02개 품목으로 확대

'매실 약과' 등 24개 품목 추가

전라남도 순천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16개 업체의 24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시의 답례품은 56개 업체, 102개 품목으로 재정비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답례품은 농축산물 2개, 가공식품 12개, 생활용품 8개, 관광·서비스 분야 2개 등 총 24개 품목이다.

주요 선정 답례품으로는 순천의 특산물인 매실을 활용한 '매실 약과', 지역 농산물로 만든 '고들빼기 미스트', 로컬브랜드 브루워스의 '대추야자 디저트'와 '골드브

루' 등이 포함돼 순천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품목을 선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답례품은 기부자들이 순천의 고유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개별 품목의 스토리 홍보를 강화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확대... 최대 300만원

전라남도 순천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

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이자 상당액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1746명이 33억원을 감면받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정원도시 순천 만끽하는 '세계정원 마을여행'

전라남도 순천시는 최근 순천의 정원과 마을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 '순천 세계정원 마을여행'이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조곡동 일본식 정원마을, 매곡동 최초 외국식 정원마을, 저전동 한국식 정원마을 등 순천 3개 마을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정원문화와 마을의 이야기

를 담아 '세계정원 로컬여행'을 테마로 기획된 이색 관광상품이다.

'순천 세계정원 마을여행'은 지난 9일과 10일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마을별로 제공되는 '정원 체험 키트'를 통해 정원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을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곡동의

향기를 담은 일본식 정원 체험, 매곡동 고산의원장 가옥에서 진행된 컬러링 체험, 저전동의 마을정원사와 함께하는 식물로 안부를 전하는 정원 채집 활동이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16일과 17일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며 "정원을 테마로 한 순천의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심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나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녹색로 배롱나무 정비 완료 가지치기 마무리... 장관 연출

전라남도 순천시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녹색로 배롱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정암대사거리에서 별량 봉림 육교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돕고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해 여름철 붉게 물드는 배롱나무의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배롱나무는 7월부터 9월까지 선명한 붉은색과 분홍색 꽃을 피우며, 약 100일간 꽃이 지속되어 백일홍 나무로 불린다. 여름철 장기간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특



순천시가 녹색로 배롱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했다.

순천시 제공

징이다.

시는 배롱나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맵시혹나방과 그을음병을 차단하기 위해 3~4년 주기로 계획적인 수목 관리를 지속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보성 경계까지 배롱나무 가지치기 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배롱나무 가지치기는 '정원의 도시'에 걸맞은 가로수 경관을 유지하고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쾌적한 도시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